

국 어

문 1. 다음의 ‘기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인내심을 기르다. (장난) 강하게 등하다

- ① 그녀는 아이를 잘 기른다. (아이) 나 보살피다
- ② 그는 취미로 화초를 기르고 있다. 나 보살피다
- ③ 병을 기르면 치료하기 점점 어렵다. 내버려두다
- ④ 나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운동한다. (운동) 강하게 하다

문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뚝구리는 스스로 말뚝을 아껴 여룡(驪龍)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룡은 여의주가 있다고 하여 뽀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말뚝을 보고 비웃지도 않는다.
— 이덕무, 『선굴당농소(蟬橘堂農笑)』에서 —

- ① 사물에 빗대어 진리를 설파한다. 말뚝구리 - 말뚝, 여룡 - 여의주, 부러워하니까 자연스러워 하는 것에 비유
- ② 사물의 가치에 우열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관, 우열을 두지 말라
- ③ 곤충과 신화적 동물을 비교하여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 말뚝구리, 여룡, 나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동물
- ④ 사소해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말뚝, 말뚝구리는 ‘말뚝을 아끼’

문 3. (가)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게 되기도 하고 나쁘게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무척 중요하다. 나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상대방도 말을 함부로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말을 조심하면 상대방도 말을 조심할 것이다. (가) 라고 하는 속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낸다.

- 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② “말이 말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만든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말은 해야 맛있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

문 4.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호질(虎叱)』은 『열하일기』에 수록된 박지원의 대표적인 한문 소설로, (가) 수법으로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특히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고 있다. 『호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범이 자신의 몸에 붙어 사는 창귀들과 함께 먹잇감을 의논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학식과 명망을 갖춘 북곽 선생과 열녀로 소문난 과부 동리자가 밤에 남몰래 밀회를 즐기다가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발각되어 수모를 당하는 부분으로, 양반 지배층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고 있다. 셋째는 범이 북곽 선생을 만나 질타하는 부분으로, 범의 질책은 바로 작품의 제목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범은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북곽 선생을 앞에 두고 인간의 부도덕함과 이기심, 서로를 죽이는 잔인함 등을 비판하고 그와 비교되는 범의 덕성을 얘기한다.

- ① 의고적(擬古的) 과거의 것이 가래 판판. 판판
- ② 고답적(高踏的) 현상과 동떨어진 나
- ③ 우화적(寓話的) 인간적인 동식물 등장. 풍자/해학
- ④ 사실적(寫實的) 있는 그대로 그려냄

문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옥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 포로를 실은 인도 배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석방 포로 이명준(李明俊)은, 오른편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에 가서, 거기 기대어 선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냈으나 바람에 이내 꺼지고 하여, 몇 번이나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당긴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허깨비다.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획 돌아보면, 쑥, 숨어 버린다. 헛것인 줄 알게 되어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허깨비다. 이번에는 그 눈은, 뱃간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 고개를 들자 쑥 숨어 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 최인훈, 『광장』에서 —

- ① 이명준은 선실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난간에 기대어 선다.
- ② 이명준은 배 안에서 부당한 감시를 당하고 있다. 허깨비인 눈은 안 보인다.
- ③ 이명준은 석방 포로가 되어 남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쪽, 중립국, 남한
- ④ 이명준은 허깨비가 보일 만큼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눈을 간접적으로

문 6.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테면 A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지만 B는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한다.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B는 대화 과정 자체보다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감이나 유대감 형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 <보 기> —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 ①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야 했는데, 다음엔 그렇게 하자.
- ② 할 수 없지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 ③ 문 활짝 열어 놓고, 며칠간 친구 집에서 지내다 와.
- ④ 냄새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어때?

아니.. 응사 명장면 이구나... (친분이...)

문 7. (가)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적절한 것은?

“말을 해 보아, 말을. 찌소같이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지만 말고. 네가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 그제서야 효원이 고개를 든다. 물론 감히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요, 목소리 또한 불손하지 않았다. “어머님.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속에 심중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심중을 가지고 한 일이라면, 남이 무어라고 한다 해서 쉽사리 불견 주견도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이번 제가 한 일이 설령 어머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평소에 제 생각이 그랬던 것이라 아직은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용서를 빈다는 것은 오히려 어른께 욕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만 아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으니, 어른을 능멸하는 일입니다. / 그제 앉은 자리나 모면하자는 얕은 잔피로 어머님께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최명희, 『혼불』에서 —

- ① 파죽지세(破竹之勢) : 적은 거침없이 물리침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갖대 영씨 남의 의견을 따라 움직임
- ③ 격물치지(格物致知) : 사물과 접촉하여 그 이치를 밝히게 함
- ④ 순망치한(脣亡齒寒) : 앞사람의 잘못이 뒷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문 8. 밑줄 친 말이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화단에 있는 흙이 찰지다/차지다.
- ② 글을 읽으려야/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다.
- ③ 너무 어지러워서 하늘이 다 노라네/노랗네.
- ④ 누가 그런 주책있는/주책인 소리를 하더냐?

문 9.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곳은 모자(母子) 병실이다.
- ② 어머니는 지극한 간호(看護)를 받았다.
- ③ 삼촌은 그 병원의 내과(X科)를 찾아갔다. 내(내내)
- ④ 동생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入院)을 했다.

문 10.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 내 친구가 그곳을 방문했다.
- ② 이 시는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과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사고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0
- ④ 그 일이 / 설령 실패했지만 /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므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문 11.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꽤 많이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답니다. 우선 훈민정음이 언제 완성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세종실록』에는 음력 1443년 12월, 즉 양력 1444년 1월경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또 언제 반포되었는지도 잘 모르지요. 사실 훈민정음의 반포란 말은 어폐가 있어요. 『훈민정음』 발간을 반포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반포식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반포일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아요. 『훈민정음』이죠.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완성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즉 양력 10월 초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이 서로 달라요. 북한은 추정된 창제일에 따라 1월 15일을, 남한은 추정된 반포일에 따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어요. 또 ‘한글’이라는 명칭도 누가 처음 지어서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1910년대에 ‘한글’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데, 그 명칭을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시경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지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해 볼까 해요. 한글은 음소 단위의 표음 문자이지만, 모아 쓰기를 하여 음절 단위로서의 표음 문자가 갖는 장점을 일부 지니게 되었고 경음이나 격음과 같은 음성 자질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기도 했죠. 화면을 보면 서로 모양이 비슷한 ‘ㄱ, ㅋ, ㆁ’이 각각 ‘평음, 격음, 경음’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 주죠. 클릭해 볼까요? 자,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한글은 글자 모양에 기억하기 쉬운 체계성과 조형성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여러 문자보다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체계성과 조형성은 자음의 경우 발음 기관의 모양으로 구현되고 모음의 경우 철학적 관념의 시각적 조합으로 구현되니, 이런 매력적인 글자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①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강연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청중에게 질문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문 1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로 확증 편향을 들 수 있다. 확증 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 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오히려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뉴스의 출처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뉴스를 선별하여 그 뉴스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수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마는 것이다.

- ① 확증 편향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② 확증 편향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인지 활동 수행을 방해한다.
- ③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한다.
- ④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문 13.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인 것은?

- ①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 ② 편식하지 말고 다른 음식도 먹어라.
- ③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④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함께 가지 않아도 좋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 다시 넋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백석, 「고향」 —

- ① 의원은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② 3인칭 화자의 진술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객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
- ④ 의원은 시적 화자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문 15. 다음 글에 사용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차 흡연이란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고도 몸이나 옷, 카펫, 커튼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을 통해 흡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고도 흡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2차 흡연과 같지만 흡연자에게 근접해 있어 담배 연기를 함께 맡는 2차 흡연과는 다르다.

3차 흡연도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3차 흡연 물질에 노출된 생쥐에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폐에서는 과도한 콜라겐이 생성되었으며,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간경변과 간암, 폐기종, 천식 등을 일으킨다. 또 3차 흡연 환경에 노출된 생쥐들의 경우 상처가 생겼을 때, 치유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났다.

- ① 개념 정의
- ② 인과
- ③ 열거
- ④ 문제 해결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따뜻한 사람으로 보인다거나, 배가 고프면 구직자에게 무정해진다거나 하는 일상의 행동을 설명할 이론이 있는가? 기억에서 금방 사라지는 돌발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심지어 눈에 잘 띄는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를 수 있다.

나는 내 행동의 이유를 곧잘 설명하곤 한다. 그럴 때면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으며, 따라서 내 얘기는 에누리해서 들어야 한다는 걸 나 스스로 정확히 인식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개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거의 다 믿는 눈치다. 나도 다른 사람의 설명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더러는 상대가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있다는 걸 내가 눈치 챌 때도 있지만, 대개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널리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 있다. 목격자, 피고, 배심원이 자신의 행동 이유나 어떤 결론에 도달한 이유를 말할 때는 비록 그들이 솔직히 말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 설명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① 목격자, 피고, 배심원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 ③ 말이나 행동의 원인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나 동기를 설명하면 신뢰해야 한다.

문 17.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건 개요

신여척은, 김순창이 동생인 김순남을 구타하자 분노하여 김순창을 때리고 발로 차 이튿날 죽게 하였다.

○ 왕의 교지

남의 형제 사이의 싸움을 보다가 신여척이 갑작스럽게 불같이 성을 내었다. 이전에 아무런 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어떤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별안간 발끈하는 사이에 싸움에 뛰어 들어가 상투를 잡고 발로 차면서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인륜과 강상(綱常)*의 변이다.”라고 하고, 싸우던 형제가 네가 무슨 상관이나고 책망하자 “내가 옳은데 네가 도리어 성을 내고, 네가 발길질하니 나도 하겠다.”라고 하였다. 아, 신여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재판관이 아니면서 형제간에 공정하지 않은 죄를 다스린 자는 신여척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범죄자를 사형수 명부에 올린 일이 무수하나,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기록하지 않음을 신여척에게서 볼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신여척을 방면하라.

— 「경술년(1790) 신여척의 옥사」에서 —

※ 강상(綱常):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 ① 판결에는 이유나 상황이 참작되었다.
- ② 신여척의 행동은 의롭다고 평가되었다.
- ③ 형제간의 다툼은 크게 지탄 받는 일이었다.
- ④ 신여척은 원한을 갚으려 범죄를 저질렀다.

김순창 → 김순남
신여척 → 김순창
형제 다툼
형제간 공정하지 않은 죄를 다스린 자는 신여척을 말함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레코드가 등장하고 대량 복제에 용이한 원반형 레코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음악의 소비 양상은 매우 빠르게 변화했다. 당시의 레코드는 매우 비싸긴 했지만 음악을 반복해 들을 수 있었고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널리 애용될 수 있었다. 또한 지금과 마찬가지로 거리의 상점, 유흥 공간 등에서 홍보와 고객 유인을 위해 레코드 음악을 널리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돈이 없다 해도 누구나 쉽게 레코드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다. 레코드의 수요는 날로 확산되었는데, 매체의 특성상 지리적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레코드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이탈리아 출신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20세기 초반, 자신의 고향인 이탈리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을 비롯해 북미·남미 대륙을 넘나드는 세계적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레코드가 인기를 끌면서 극장 중심의 흥행 산업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대중성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레코드가 팔린다고 해서 극장의 흥행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레코드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극장 흥행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시대가 다가왔고, 가수들은 전에 비할 바 없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

- ① 레코드의 대중화로 스타급 음악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 ② 오페라 극장에서는 관객에게 레코드 음악을 들려주면서 흥행을 성공시켰다.
- ③ 오페라 가수 카루소는 다양한 언어로 노래한 레코드를 제작하여 출시하였다.
- ④ 새로 등장한 레코드 가격이 매우 비싸서 대중은 레코드 음악을 듣기 힘들었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문해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2016년 국제읽기능력평가에서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린트(인쇄물) 읽기’ 능력과 ‘디지털 읽기’ 능력을 종합한 문해력을 평가했다. 디지털읽기능력평가는 정보 판독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책 읽기에서 동원되는 천천히 읽기, 면밀하게 읽기, 전체적으로 읽기와 같은 독해 기술들이 인터넷 정보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읽기 능력, 즉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 ①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X 관련내용X
- ② 디지털 시대를 앞서 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한다.
- ③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인쇄물 독해 기술과 정보 판독 목적의 인터넷 독해 기술은 다르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봅시다.

파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엿드리면 안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존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떼다, 이리떼! 이리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몰려갔다.

— 이강백, 「파수꾼」에서 —

- ① ‘나’는 양철북을 두드린 인물이다.
- ② ‘다’는 이리떼가 몰려온다고 외친 인물이다.
- ③ ‘존장’은 ‘다’가 망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말린 인물이다.
- ④ ‘식량 운반인’은 이전에 ‘다’를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